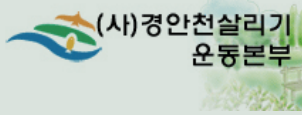


광주와 용인시민들의 영원한 동반자 京安川



관련단체  
코너 **2**  
River & Culture



정찬옥 |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사무국장  
(nga1112@hanmail.net)

경기도 용인시 호동에 있는 문수봉(404m)에서 발원한 경안천(京安川)은 용인읍을 지나 북류하다가 모현면에서 오산천과 합류한 후 두리봉에서 흘러 들어오는 고산천과 문형산에서 흐르는 직리천, 그리고 중대동에서 흐르는 중대천을 장지동에서 흡수해 흐른다. 이어 목현동에서 발원한 목현천과 경안동에서 만나 큰물을 이루고 흐르다가 다시 초월읍 지월리에서 근지암천과 합류하여 서하리에서 팔당호로 흘러 들어가는 길이 50km 유역면적 598km<sup>2</sup>의 하천이다.

〈대동여지도〉에는 경안천이 우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소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용인군 군청소재지인 김량장리를 관류하므로 김량천 〈金良川〉이라 부르기도 했다.



<http://www.gse.or.kr/>

경안천 유역의 지질은 주로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로는 남북방향으로 단층선곡을 따라 대체적으로 일직선상으로 흐른다 구릉성 산지가 하천 양편에 나란히 발달해 있다.

하천을 따라 좁고 길게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충적지의 면적은 좁은 편이나 관개 시설이 잘되어 있다. 유역의 연강수량은 1,300mm 내외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개울가에는 돌 색깔이 푸르다고 하여 청석바위, 돌의 모양이 넓어 놀기가 좋다고 하여 양픈바위등이 산재해 있었으며, 하류에는 물이 맑고 기암절벽을 이루는 등 경치가 좋아 하절기에는 유람객들이 많이 모여 들었다.

◎ 경안천 지정현황 구간

- 국가하천구간 : 22.5km(광주오포, 용인모현 경계지점~한강 합류지점)
- 지방하천구간 : 25.2km(용인 호동지점~광주오포, 용인 모현 경계지점)

◎ 경안천 서식 동, 식물 현황

- 식물 : 붕어마름, 개구리밥 물억새 강아지풀 등 81여종 분포
- 조류 : 백로, 두루미, 청둥오리, 황조롱이, 새호리기 등 60여종 분포
- 어류 : 메기, 잉어 붕어 모래무지, 미꾸라지등 23종 분포

◎ 경안천의 주요 지천 현황

**광주지역:** 중대천, 벌원천, 목현천, 오산천, 신현천, 목리천, 곤지암천, 상오향천, 상열미천, 신촌천, 직리천, 유정천, 노곡천, 궁평천, 지우천, 학동천, 신월천, 무갑천, 엄미천, 번천천, 우산천, 영동천, 산이천, 정암천

**용인지역:** 금어천, 유운천, 신원천, 영문천, 상부천, 초하천, 초부천, 오산천, 매산천, 능원천, 양지천, 신평천, 반정천, 은이천, 주북천, 금학천, 능원천, 용대천, 궁촌천

2006년 11월, 2천5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범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는 광주시와 용인시 주민대표 각1명의 공동본부장과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용인, 광주시 부시장, 용인 광주시의회 대표 등 7명의 임원진과 2천340여 명으로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는 경안천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3대 목표를 세우고 하천정화운동을 펼쳐 오고 있다.

첫째 : 1마을-1하천, 1회사-1하천살리기운동을 전개

둘째 : 주민의 적극적인 하천정화활동과 참여

셋째 : 경안천수계 불법 낚시 및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경안천 본류를 중심으로 하천정화활동과 주민계도 및 낚시행위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름다운 하천만들기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있다.

경안천 기동반을 경안천 수계를 중심으로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낚시에 대한 계도 및 쓰레기 버리지 않기운동을 홍보하며 경안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하천변 쓰레기를 치우는 기동반의 활동사진



물가에서 고기를 구어먹는 사람들, 건전한 여가활동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맑은물지킴이 활동은 지천을 중심으로 내집앞 하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용인시 및 광주시 등에서 회원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경안천을 살리기 위하여 1회사-1하천 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



맑은물지킴이 활동중인 회원

느티나무환경교육은 각학교 환경동아리반 신청학교 중심으로 1년간 실천계획을 세워 이론과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느티나무환경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1년동안 활동할 계획을 정하고, 계획에 따른 정화활동, 유해식물제거 작업, 기후교육, 생태교육을 함께 하고 있

다. 현재 느티나무환경교육은 용인시에서 3개 학교, 광주시에서 3개 학교를 모집하여 교육 중에 있다. 이외에도 환경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원, 단체, 노인회, 부녀회 등을 찾아가 실천방안을 의논하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경안천기자단활동은 매년, 연초에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기자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용인시 기자단 10명, 광주시 기자단 10명 학생을 모집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2012년 현재, 기자단 3기가 활동 중이다. 경안천기자단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기자단 발대식, 경안천 발원지 답사, 경안천의 중요성 교육 및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 기자단의 주변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각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에 의미를 두며, 경안천 환경신문을 만들면서 나의 행동을 되짚어 보는 시간도 가져본다.



청소년환경기자단 발대식



경안천 수중정화활동중인 회원들

수중정화활동은 해병대전우회와 특전동지회에서 보트를 이용하여 물속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활동을 한다.

팔당물환경교육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며, 각 지역에서 신청자를 접수하여 팔당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하며 물의 중요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하천정화활동중인 학생회원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시행한 팔당 체험환경 교육을 마치고

죽음의 하천에서 철새의 낙원으로 경안천이 변화하고 있다. 경안천에서 큰고니를 비롯해 두루미, 황조롱이, 청둥오리, 새호라기 등 조류 60여종이 발견되고 있다. 철새들이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깨끗하고 먹이가 풍부하다는 증거이다.

또한 유기물이 풍부한 용수 기준인 3급수 이상에서 서식하는 메기, 잉어, 붕어, 모래부지, 미꾸라지 등 20여종의 어류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물로는 붕어마름, 개구리밥, 물억새, 강아지풀 등 80여종이 관찰되었다. 특히 멸종위기 2급종인 금개구리의 서식지가 지난해 여름에 발견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2008년도 경안천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가 1당 5.2mg보다 크게 개선된 3.4mg으로 나타난 결과로 증명된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BOD가 1당 1.5mg이 나

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경안천의 수질이 개선되자 다양한 동식물도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경안천의 상전벽해 같은 변신에는 광주시 공무원과 주민들의 역할이 컸다.

민관군이 총동원하여 연인원 5만1318명의 광주시민들이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2007년3월부터 1.5t 트럭 1,225대에 이르는 분량의 쓰레기 18만 8279톤을 수거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하천변은 대형 청소차량 등이 들어갈 수 없어 대부분 맨손작업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경안천을 비롯한 팔당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대한 친환경 정비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 역시 깨끗해진 경안천변에다 주민들을 위한 경안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활동공간으로 제공했다. 자연형 하천복원 조성사업을 하였고, 생태탐방로에 중앙화단을 사이에 두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여가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천의 자연정화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수생식물이 자라는 황토 습지와 수질정화수로를 설치하였다.

용인시는 하천 수질개선과 주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경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안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건기에 대비하여 용수를 확보하는 한편, 수생태를 복원해 자정능력이 향상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가고, 하천변에는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생태습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였다. 🌍

